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백) 설

2025년 1월 26일 (제2118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민수기 6,22-27

화답송

-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

제2독서 야고보서 4,13-15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35-40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성가]	8시	입당	21	봉헌	218	성체	157	파견	18
	11시	입당	436	봉헌	211	성체	165, 151	파견	77
설	1월 26일(주일)		1월 28일(화)	1월 29일(수)	1월 30일(목)	1월 31일(금)	2월 1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채성일 토마스							푸리아
독서	강신호 요한 차아름 루시아	권창모 미카엘 오자영효주아네스							푸리아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이성연 베로니카							허홍숙 세실리아

■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충실한 증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 2월 1일 토요일 미사전례 - 꾸리아
- 꾸리아 월례회의 : 2/1 오전 9시, 교육관 106호

■ 설날 합동위령미사
- 1월 29일은 한국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합동위령미사가 있습니다.
- 일시 : 1월 26일(일), 11시
- 합동위령미사 후에 성모회에서 본당 전 신자 분에게 떡만둣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1월 26일(일) 설날 점심 후에 구역별 윗놀이한마당과 젠가게임이 있습니다.
- 하상회에서 바를 운영합니다.

■ 오늘 교중미사는 예수회 정홍철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 1월 성경 통독 - 에페소 4:1~6:24

■ 초축복식
-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초축복식이 있습니다. 가정용 봉헌 초 신청 받습니다. 1월26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 혼인갱신식(부부 축복식) 미사
- 혼인갱신식이란 혼인할 때 부부가 서로 다짐했던 서약을 갱신하는 예절을 말합니다.
- 일시 : 2월 1일(토), 오전 11시 * 미사 후 식사 및 나눔.
* 신청 : 1월 26일(일)까지 사무실로 주세요.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 회의 : 2/2(일) 교육관 106호
- 사목회의 : 2/2(일) 교육관 107호

■ 하상회 동계 수련회
- 날짜: 1월 31일(금)-2월 2일(일)
- 장소: Lake Tahoe, Northstart Resort Cabin
* 하상회 동계 수련회에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하상회 회장
하상회 회장에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을 임명합니다.

■ 연도 안내
- 2월 2일(일) 미사(8시/11시) 중에 고 김명철 빅토르 영혼을 위한 1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 본당 신부님 휴가
- 휴가 관계로 28일(화)-31일(금)까지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밥나눔 안내
- 밥나눔을 원하시는 구역은 총구역장에게 연락주세요.
- 2월 2일(일) 밥나눔은 고 김명철 빅토르 1주기 연도후 대건회에서 교중미사 참례하신 분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 이번 주부터 2월 2일(일)까지 공동체 기도 지향은 1월 24일에 선종하신 김 사이몬 형제님 모친 김울리엠타 자매님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 청년회- 오늘 청년회가 대건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2025년도 교무금액정
- 2025년 1월 말까지 책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년도 본당 재정 결산
*자세한 내역은 친교실 게시판 참조해주세요.

■ 세금보고자료
- 세금보고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⑤ 히터 사용 후에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2025년 달력 광고 전화번호 오류 수정
- 대건한의원 전화번호: (510)-444-1010
-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당 입구 계단 미끄럼방지 도색 작업을 해주신 대건회에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안젤라 (1/27) : 김영선, 김수연, 원은규, 임승주, 한계순
* 토마스 아퀴나스(1/28) : 채성일, 홍승천
* 사비나 (1/30) : 주미정
* 요한보스코 (1/31) : 김관수
* 마르셀라 (1/31) : 이영희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희년의 뜻과 유래

희년의 기원

희년 정신의 뿌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다. 희년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으로 부르시고, 에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념에서 비롯됐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냈다. 그리고 안식년이 일곱 번 돌아오게 되는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이름 붙인 큰 축제를 성대하게 지냈다.

해방과 회복

희년에는 안식년처럼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빛 때문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려나고 그 이전 50년 동안 가난 등의 이유 때문에 팔린 땅이 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해,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해**이다. 즉 자유를 되찾아 주는 「해방」과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이 희년의 정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희년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된 희년 정신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거쳐 예수께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그 희년 정신은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삶 안에서 실현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희년의 메시지 전체가 수렴돼 있다..

신약에서 「해방」과 「자유」는 「풀어줌」을 뜻하는 희랍어 「아페시스」라는 한 낱말로 표현되고 있고 이 「풀어줌」은 신약성서에서 「빛의 탕감」과 「죄의 용서」모두를 가르킨다. 인류는 바야흐로 2천년 대희년을 맞게 된다.

희년의 참뜻과 모든 윤리적 요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해야 할 도리이다.

희년의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감사하고 회개하며 나눔과 섬김으로써 이루어질 때 실현이 가능하다.

[가톨릭 신문]

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교 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희년을 공식 선포하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기쁘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고 요청했다.

교황은 지난해 5월 9일 칙서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Spes Non Confundit, Hope Dose Not Disappoint)를 통해 2025년 희년을 선포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가끔 지치고 상처받는 일상에서 희망이 필요하다**”며 “**우리 마음은 진실과 선과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님 승천 대축일에 앞서 마련된 이날 전례에서 교황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과 밖 모든 것들이 희망을 갈망하고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다”며 2025년 희년의 주제가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칙서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에 따르면, **2024년 12월 24일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이 열리며 희년이 시작돼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이어진다. 칙서에는 2025년 희년의 취지가 “**신앙인들은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가져야 하고, 교회는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교황은 “희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올해 기도의 해 기간에 너무나 많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자”며 “**희망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심각하게 상처받고 망가진 피조물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황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필요하지만, 특히 “오직 ‘지금, 여기’의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과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문]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6명	158명	204명

주일헌금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헌금	선교	성소	황금빛	한국학교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교무금] 이흥구(1-3), 김상실(1-4), 박희용(1-12), 김정남(1-12), 고영남(1-6), 박부기(1-3)					PETER HAN						

